

취재요청서

노나메기

(재)백기완노나메기재단

수신 사회부, 문화부, 사진부
제목 백기완 5주기 학술대회_민중주도 해방통일론
발송일 2026년 6월 15일(월)
요청사항 없음
문의 양기환 대변인 010-5307-3595
채원희 사무처장 010-3665-2779

백기완 5주기 추모 학술대회 “전쟁과 분단 너머, 평화와 노나메기 세상을 그리다”

공동주최: 백기완노나메기재단/ 한국냉전학회/ 대동문화연구원/
심산김창숙연구회/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1. 귀 언론사와 관계자님께 고맙습니다.

2.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은 백기완 선생 5주기를 맞아 오는 2026년 6월 19일(금)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118호에서 추모 학술대회 “전쟁과 분단 너머, 평화와 노나메기 세상을 그리다” 를 개최합니다.

3. 이번 학술대회는 백기완 선생의 한살때를 관통해온 민중주도의 한반도 해방통일운동과 그 사상적 토대인 해방통일론을 오늘의 조건 속에서 재조명하기 위함이며, 백기완 선생에게 통일은 남북 간 제도 통합이나 정부 주도의 정책담론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일찍이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라는 물음으로, 한반도 현실을 분단체제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넘어설 것인가의 역사적 결단으로 제기했다.

백기완의 통일론은 추상적 민족주의나 선언적 평화론이 아니었다. 선생이 설립 운영했던 통일문제연구소가 《자료로 보는 분단과 통일의 역사》의 부제에서 밝힌 것처럼, 그 문

제의식은 “분단의 계급적 본질과 노동해방을 향한 민족통일의 길”을 묻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 분단은 단지 휴전선으로 나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의 삶과 노동, 사회 내부의 억압구조 속에 깊이 새겨진 현실이었다. 백기완 선생이 말한 해방통일은 바로 이 분단모순을 근본에서부터 넘어서려는 사상이자 실천이었다.

4. 분단 81년을 맞는 오늘의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 위기와 군사적 긴장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재난과 전쟁을 거치며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세계질서 역시 다극적 전환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미·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주변 정세 변화에 따라 긴장 국면의 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남북 관계의 경색 또한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두 국가 체제론’ 역시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한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다. 두 국가 체제론은 통일을 미래의 목표라기보다 불가능한 전제로 보고, 현재의 두 국가 상태를 인정하고 관리하자는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일을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통일을 대체하는 평화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또한 분단모순의 역사성을 해명하고 혁파하기보다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백기완 선생의 통일운동은 바로 이러한 현실주의와 다른 길을 가리켰다. 그는 한반도 분단을 단순한 민족분단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의 삶 속에 내재화된 ‘사회적 분단모순’으로 인식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두고 “통일꾼”이라 말했던 것은, 통일을 특정 정세의 구호가 아니라 한살매 전체를 바친 역사적 실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 통일》, 《해방통일》이라는 통일문제연구소의 초기 간행물들이 보여주듯, 백기완 선생의 통일론은 통일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면서 동시에 분단질서로부터 민중의 삶을 해방하려는 발본적 사유였다.

5.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타율적 분단과 미해결 상태가 지닌 역사성을 되짚고, 민중주도 해방통일운동의 맥락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발본적 통일의 경로를 새롭게 모색하는 대사회 토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특히 백기완 선생의 해방통일론을 돌아 시야 냉전, 한반도 분단체제,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넓은 시야 속에서 다시 읽음으로써, 전쟁과 분단을 넘어 평화와 노나메기 세상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묻고자 백기완노나메기 재단과 한국냉전학회는 “백기완의 민중주도 해방통일론”을 중심으로, 한반도 분단의 역사성과 현재적 위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주체적·실천적 사유의 경로를 확장하기 위해 논문 공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세 명의 연구자(홍석률, 박아름, 최진환)를 선정하였다.

6. 행사는 총 4부로 구성된다.

인사말은 김세균(백기완재단 상임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정치학)/ 이영호(대동문화연구원장)/ 심산김창숙연구회/ 백지운(한국냉전학회 회장)이 축사와 개회사를 전한다.

1부 ‘백기완 민주주도 해방통일론의 재조명’에서는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통일문제연구소의 연구작업보고에 이어,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가 「백기완의 분단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가 「백기완의 민족적 민주혁명 사상과 그 의의」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동기 강원대 교수와 김성경 서강대 교수가 참여한다.

2부 ‘냉전아시아와 한반도 분단체제’에서는 이혜령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한반도 분단체제를 동아시아 냉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검토한다. 박아름 동국대 교수는 「1970년대 아시아 지도자의 중립화 바람: 김일성과 시아누크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최진환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960년대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본 남북 분단체제의 역사적 함의」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도민 강원대 교수와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가 나선다.

3부 ‘세계재편 시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는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지구적 국제관계’의 출현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가능성」을 발표하고,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두 국가의 평화공존의 길」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일영 한신대 교수와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참여한다.

마지막 **4부 원탁토론**은 김민환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원탁토론에서는 각 세션의 논의를 종합해 백기완 선생의 민주주도 해방통일론이 오늘날 한반도 평화 논의에 던지는 의미, 두 국가 체제론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전쟁과 분단을 넘어서는 평화와 노나메기 세상의 가능성을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7. 이번 학술대회는 백기완 선생의 《해방통일》이라는 말이 품고 있던 민주적 상상력과 실천성을 오늘의 세계사적 조건 속에서 다시 묻는 자리이며 전쟁과 분단 너머 평화와 노나메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백기완의 통일

론을 오늘의 정치적 구호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형성되고 실천되어온 역사적 조건 속에서 다시 읽는 시도이기도 하다. “민중주도 해방통일론”을 분단 81년의 역사, 냉전아시아의 구조, 남북관계의 굴곡, 세계질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역사화 함으로써, 이번 학술대회는 한반도 평화 논의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자 한다. 나아가 분단의 관리에 머무르지 않는 평화, 전쟁의 억제에 그치지 않는 평화, 민중의 삶과 해방을 중심에 두는 여러 미래지향적 평화담론을 함께 상상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8. 이번 학술대회는 백기완노나메기재단, 한국냉전학회, 대동문화연구원, 심산김창숙연구회,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끝-

※ 별첨 : 백기완 5주기 학술대회 웹자보

전쟁과 분단 너머, 평화와 노나메기 세상을 그리다 : 백기완 5주기 추모 학술대회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12시 30분 ~ 17시 30분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118

인사말 (12:30 ~ 12:45)

축사 | 김세균 (노나메기재단 상임고문)

축사 | 이영호 (대동문화연구원장 / 심산김창숙연구회)

개회사 | 백지운 (한국냉전학회 회장)

1부 (12:45 ~ 13:50)

백기완 민중주도 해방통일론의 재조명

사회 | 백원담 (성공회대)

발표 0 |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작업보고

발표 1 | 백기완의 분단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
홍석률 (성신여대)

발표 2 | 백기완의 민족적 민중혁명 사상과 그 의의
천정환 (성균관대)

토론 | 이동기 (강원대), 김성경 (서강대)

2부 (14:00 ~ 15:00)

냉전아시아와 한반도 분단체제

사회 | 이해령 (성균관대)

발표 1 | 1970년대 아시아 지도자의 중립화 바람: 김일성과 시
아누크를 중심으로 박아름 (동국대)

발표 2 | 1960년대 국제 행사를 통해 본 남북 분단체제의 역사
적 함의: 세계청년학생축전, 가네포, 월드컵, 올림픽을
중심으로 최진환 (경남대)

토론 | 김도민 (강원대), 김태경 (성공회대)

3부 (15:20 ~ 16:20)

세계재편 시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발표 1 | '지구적 국제관계'의 출현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가능성 이남주 (성공회대)

발표 2 | 한반도 두 국가의 평화공존의 길 구갑우 (북한대)

토론 | 이일영 (한신대),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4부 [원탁토론] (16:30 ~ 17:30)

좌장 | 김민환(한신대)



주최 **노나메기** (재)백기완노나메기재단 한국냉전학회 대동문화연구원 심산김창숙연구회 동아시아연구소